

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	보도자료		 대한민국
담당자	• 배포 : 2020. 07. 07(화) • 철도실 박준우 실장/홍정표 책임연구원/길은비 연구원 • ☎ 031-389-6470 / 031-389-6392 / 031-389-6579 • jwpark@kaia.re.kr / grayjackal@kaia.re.kr		
보도일시	• 7월 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즉시 보도 가능		

국내 기술 "상하 개폐형 스크린도어(VPSD)" 프랑스에서 운영 시작

- 국가R&D로 최상위 수준 안전성 등급(SIL4) 획득하여 해외시장 진출 물꼬를 트다 -



프랑스 방브스 말라코프역 설치 VPSD

□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원장 손봉수, 이하 국토교통진흥원)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(주)우리기술이 개발한 “상하 개폐식 스크린도어(VPSD)”가 세계 최초로 프랑스 파리 N노선 방브스 말라코프역(Vanves Malakoff)에서 지난 6월 30일(유럽시각 10시)부터 상용 운영을 시작했다.

* VPSD : Vertical Platform Screen Door

○ VPSD 컨소시엄(우리기술, 에스트라픽)이 프랑스 철도청(SNCF)과 400만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(17.10.13) 한지 2년 8개월만이다.

□ 이는 국가R&D 성과의 실용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‘국제 최상위의 안전무결성등급(SIL4) 획득’을 연구개발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한 결과다.

* SIL(Safety Integrity Level) : 시스템의 무결성을 나타내는 통계적 기준으로 1~4까지 안전 무결성기준(SIL)이 있으며 높을수록 신뢰성이 높다.

○ 상하스크린도어 시스템은 여러 차종의 열차(3종 이상)가 운영되는 방브스 말라코프 승강장에 적용되도록 설계·제작되었음에도 그간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왔다.

○ 이에 국토교통진흥원은 2018년 연구 종료 후에도 성과의 활용·확산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상용화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보유기술의 검증 및 인증 등을 지원하는 “**실용화 문턱 과제**”(R&D)를 통해 (주)우리기술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.

□ 이번 국토교통 R&D 지원을 통해 우리기술은 약 2조 규모의 상하 스크린도어 시장의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프랑스 철도청(SNCF)은 2024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차종의 열차가 운영되는 역에 적용하여 향후 307개 역사에 도입할 계획이다.

○ 또한 (주)우리기술은 최고 안전성 등급(SIL4)의 제어 기술 기반으로 중국 수출용 상하 스크린도어 시제품을 제작하고 중국 지아칭철도교통안전시스템 유한공사(이하 JCI)에 1차 시제품 수출을 마쳐 중국 시장 진출전망도 밝혔다.

※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(www.kaia.re.kr)

국토교통부 산하 유일한 국가 R&D사업 전문기관으로서 5,247억 원('20년 기준)의 R&D 예산을 집행·관리하고 있으며, 주요사업으로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(건설기술 연구사업, 플랜트연구사업, 도시건축연구사업,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, 교통물류연구사업, 철도기술연구사업,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등), 건설·교통신기술 인증 및 기술가치평가 사업이 있다.